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기쁨 제목: 삶의 실타래를 푸는 기쁨 성경: 빌립보서 4장4-9절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4:4-9)

삶이 엉켜있는 실타래마냥 꼬여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웬지 내 인생만, 내 가정만, 내 일터만 꼬여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어느 틈에 마귀는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 부모 탓을 하든지, 배우자 탓을 하든지, 자녀들 탓을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삶의 실타래는 더 분명하게 엉켜서 가위를 들고 모두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하기에 이른다.

-쉽게 생각하자.

-차분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

-과연 어디에 부터 꼬이게 되었을까?

-‘남편이 그말 만 하지 않았어도’ 라고 생각하는가?

-‘직장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의 것 인양 도용하지만 않았어도’ 라고 생각하는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으로는 결코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웃어넘겨야 한다.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우나 불가능하지 않다.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된다.

-긍정적 태도가 도움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자.

-그렇지 않고 기쁨 대신 슬픔이나 낙심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병들어 고생하느니, 기쁨을 훈련하는 것이 낫다.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재밌다.

-슬픔의 에너지가 많을수록 이 훈련이 더 힘들 수 있다. 슬픔의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내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나의 삶은 위축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한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칭찬 받아야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일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것은 친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이나 칭찬을 채움받지 못해서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산다.

-칭찬을 많이 먹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로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셨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그들로부터 오는 칭찬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갈망하는 것과 건강하게 주고 받는 것은 다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진짜 기쁨이 샘솟게 된다. 내가 나의 사명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도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또 그래야 정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칭찬은 부러움으로 변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이 부러움이 시기로 변하고 이 시기가 쌓여서 폭발하면 질투로 드러나게 된다.

-칭찬이 부러움으로 변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는 나의 인생이 아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게 된다.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냥 부러워 해 주는 것과(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대접 수준)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부러워하면서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은 건강하다. 그러나 부러워하고 칭찬까지 하면서도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다면 건강하지 않다.

-왜냐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남편의 초라한 모습, 아내의 초라한 모습, 자녀들의 초라한 모습, 부모님들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빨간불이다. 그러면서 슬퍼진다. 그러면서 모방하게 되고, 모방을 강요하게 된다. 그리고 기쁨은 메말라간다....

-그래서 인공기쁨술이라도 빨리 해서 슬픔의 에너지를 막아서야 한다. 슬픔의 에너지가 많을수록 나의 삶은 더 슬퍼진다. 죽을때까지.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좋은말 할 때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명령이며 훈련이다. 하나님은 어느 인생도 초라하게 지으신 적이 없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이 초라한 것은 아니다. 외모가 빼어나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초라한 것은 아니다.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라는 뜻이다. 슬픈일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이겨야 한다. 슬픔에 침잠하지 말라는 뜻이다. 슬픔의 육조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

-슬픔도 감정이고, 신체적인 감각을 불러 일으키고, 모든 감각은 잘 조절하면 쾌감도 되기 때문에 슬픔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슬픔은

삶을 소모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절망과 낙망이라는 질병으로 추락하게 한다.

해결책.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슬픔의 요인이 되는 모든 사건과 사람에게 너그러워라. 놓아 주어라. 선을 베풀어 주어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특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슬픔이 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 슬픔의 도를 넘지 않게 하신다.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4:4-9)

8-9절은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다.

-특히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대접을 하거나 덕을 베풀더라도 소홀히 자랑하듯이 하지 말고 겸손히 덕을 받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베풀라.

-무슨 기림이 있든지, 축하할 일이 있든지, 깊이 정성껏 마음을 담

아 겸손하게 축하하라.

-그러면 참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말씀: 마태복음
9장 18-26절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
고

24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
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9:18-26)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준비된 영혼을 찾
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영혼을 준비토록 합시다!